

가? 그는 다만 자신을 수련하여 삼계를 벗어나고, 원만을 이루면 그는 성공한 것으로 여기고 해탈한 것으로 여기므로, 그는 다른 사람을 제도하려는 소원, 혹은 목적을 전혀 갖지 않는다. 보살은 다만 부처를 협조하여 중생을 제도하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다. 보살이 자신의 세계로 사람을 제도한다는 말을 하는데, 그(她)에게는 아직 세계가 없다. 그는 부처의 세계에 있기에, 그가 마음대로 사람을 제도하려면 부처가 요구한 것인지를 보아야 하는데, 이 이치가 아닌가? 부처가 사람을 제도하겠다고 말하면 그가 구체적으로 가서 도와주는데, 이러한 관계이다.

제자: 저는 전력(全力)을 다하여 집착심을 내려놓으려 하지만, 내려놓고 내려놓지 못하고는 모두 사부님께서 수고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사부: 그럼 곧 내가 수련한 것으로 되지 않는가? 과정은 이렇지만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사실 당신이 문제를 인식할 수 있음을 발견하고 정말로 그런 응당 있지 말아야 할 집착심을 인식하였다면, 그 순간에 당신은 표준에 도달했다. 사부는 물론 당신한테서 표면의 물질을 없애주지만 이것도 사부가 어떻게 한 것으로 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 자신이 수련한 것이기 때

자신의 主意識(주이스)가 확고하지 못함으로 인해 조성한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그것을 없애버리기 전에는 곧 당신을 교란할 수 있다. 업력을 없애버리지 못하면 그것의 이때의 표면적인 행위는 모두 당신 것으로 인정될 것이다. 만약 강렬히 배척하며, 똑똑히 분간할 뿐만 아니라 主意識(주이스)가 매우 강하다면, 그것은 다른 한 가지 일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그것을 배척하지 않는 한 모든 행위는 당신이 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수련이란 곧 이런 나쁜 것을 수련하는 것이며 동시에 主意識(주이스)를 강화해야 한다. 예전의 일은, 수련 중에서 가장 좋기로는,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좋지 않은 것일지라도 이미 지나간 것이다. 앞으로 잘하라. 집착이 생기지 않도록.

제자: 미국에서 열린 몇 차례 법회를 우리들이 녹화했지만 국외의 육친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부님의 뜻을 위반하는 것입니까?

사부: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내가 말한 우리 이 대법의 수련방법은 한 갈래 가장 좋은 길이며 가장 순수한 길이다. 당신들의 진정한 원만을 보증하고 있다. 나는 정말로 당신들에 대하여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나는 우리 대법 중에서 우리 대법수련에 속하지 않는 그런 것을 모두 청리

(淸理)해 버리려고 한다. 설령 내가 말한 것일지라도 국부 지역에 대해서거나 어느 한 나라 제자에 대하여 말한 것이어서 다른 지역에 적합하지 않으면 청리해야 한다. 그것이 다만 이 한 지역에서 말한 것일 뿐이고 보편성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라면 역시 청리해야 한다. 목적은 당신들이 진정하게 수련할 수 있으며 어떤 교란도 받지 않게 하는 바로 이런 목적이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우리 현 단계에 오늘 여기에서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들이 가지고 가서 수련생들에게 틀어주면 수련생들에겐 제고가 있고 좋은 점이 있잖은가? 당신들이 녹화를 했으면 곧 그만이다. 그러나 그 어떤 환희심, 흥분하는 마음을 품고 사회에 가서 이러한 것을 전파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이 내가 돌아가서 우리 연공장에 혹은 우리나라의 수련생에게 보여주겠다고 말하는데, 역시 안 될 것이 없다. 그러나 이런 일을 어떻게 장악하는가는, 내가 말한다면 내가, 제자인 당신에게 상세히 알려줄 필요가 없다. 여러분이 다 보았거나 혹은 설법 책이 인쇄되어 나오면 곧 그를 지워버리면 된다. 누가 만약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복제하여 주고 이런 것을 틀어주며 이런 것을 전하고 함부로 출판사 혹은 공장에서 대량으로 제작하게 한다면 곧 가장 나쁜 짓을 하는 것이다. 그럼 내가 말한다면 그는 곧 한

다시 말해서, 중생을 제도함은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며 또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어찌 석가모니가 세상에 내려옴에 얼마나 많은 불(佛)·도(道)·신(神)의 허락이 있고, 또 얼마나 많은 더욱 높은 층차의 불(佛)·도(道)·신(神)의 허락이 있어야만 비로소 그가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겠는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누가 감히 내려오겠는가. 내려옴은 곧 떨어져 내려온 것과 같은바, 당신이 돌아가려면 당신은 수련해야 하는데, 누가 감히 내려오겠는가? 삼계 또한 누구나 함부로 들어오게 하지 않는다. 당신은 당신이 인류에 의해 오염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당신들 한 사람이 똥구덩이 속에 뛰어 들어 간다면, 당신이 말해 보라. 당신이 오염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당신은 바로 오염되고 말 것인데, 그렇지 않은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본래는 종교 중의 매우 성스러운 표현으로서 불가의 말이고, 신의 언어이며, 수련중의 언어인데, 모두 함부로 속인 중에 가져와 제멋대로 말하고 있다. 말하는 것이 마치 한 푼의 가치도 없다는 듯이 하는데, 그것에는 신성한 내포가 없다.

그 밖에 이 나한(羅漢)도 중생을 제도하려는 소원이 없다. 무엇 때문인가? 왜냐하면 나한은 자각각자(自覺覺者)이기 때문에 나한이라고 한다. 무엇을 자각각자라고 하는

사람의 정이다. 당신이 제출했으므로 나도 불교도들이 왜 이렇게 말하는가를 좀 말하겠다. 지금 불교에서는 소원을 품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인위적인 것이 아닌가? 그것은 유위적인 마음이 아닌가?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닌가? 불교에서는 중생제도 발원(發願)을 말하는데, 그는 그가 중생을 제도하는 소원을 품으면, 곧 그로 하여금 부처가 되게 한다고 여긴다. 이것은 웃음거리가 아닌가? 자신이 진정하게 그 경지에까지 수련해야 하며, 그렇게 많은 고생을 겪고 그런 고심(高深)한 경지에 도달해야만, 비로소 부처가 될 수 있다. 지금 곧 중생을 제도하려 하지만 수련한 것이 아직 얼마 높지도 않는데, 무슨 중생을 제도하는가. 사실 중생을 제도한다는 많은 불교도의 이 말의 함의 속에는 많고도 많은 사람에 대한 정(情), 집착과 과시심이 포함되어 있다. 내 말은 단번에 사람의 마음을 도려낼 수 있다. 사람이 어찌 부처 경지의 그런 중생을 제도한다는 내포가 있을 수 있는가? 사람이 지금 중생 제도를 말하는 것은 곧 과시심과 그 복잡하고 허황한 망상에 빠진 집착심이 아닌가? 이것은 사람에 집착하는 것이고, 정에 집착하는 것이며, 장래에 집착하는 과시적인 그런 마음이 이끈 것이다. 한 불교도에게 말법 시기의 그렇게 높고 신성한 경지가 있을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

대법제자의 표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다.

제자: 저는 이전에 수련에 정진하지 못하고 색(色)의 고비 면에 또 몇 차례 넘기지 못했는데 지금 고치면 사부님께 서 그래도 가지실 수 있습니까?

사부: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당신이 한 차례, 두 차례 고비를 넘지 못했다 하여 곧 자신이 더는 수련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들 수련이 사실 곧 이러하다. 어떤 사람은 잘 수련하여 이 고비를 넘었고, 어떤 사람은 좀 차이가 있어 이 고비를 잘 넘지 못했으며 심지어 이 고비를 넘지 못했다. 그러나 그가 다른 면의 고비는 또 넘어갈 수 있다. 이처럼 시련을 겪으며 잘 넘기거나 잘 넘지 못하는데, 이것이 곧 수련이다. 개개인의 매 한 고비를 모두 넘길 수 있다면 당신은 더 수련할 필요가 없이 즉시 부처로 되는데 이런 이치가 아닌가? 그러나 고비를 늘 넘지 못한다면 곧 중시해야 하는바, 장기간 그렇게 내려가면 그것이 그래도 수련인가?

제자: 저는 『轉法輪(전법륜)』을 배우기 전에는 기공으로 병 치료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았습니다.法輪功(파룬궁)을 배운 후 이미 이런 직업을 그만두었습니다. 지금 중

의(中醫)와 침구를 배워도 되는지, 그리고 이것을 직업으로 삼아도 되는지요?

사부: 절대 문제없다. 중의는 인류사회의 일종 의료수단이고 사람의 것이며 수련과 충돌이 없다. 기공으로 병 치료함에 대해 말한다면 나는 그것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한다. 내가 보건대 당신이 중의침구를 배울 수 있다면 모두 문제 없으며, 배울 수 있고, 할 수 있다.

제자: 우리 여기 수련생은 숫자가 적은데다가 거처가 분산되어 국내에서 법을 배우는 그런 큰 환경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환경을 더욱 좋게 창조해야 합니까?

사부: 당신들은 아는가? 그 해 내가 북경에 가서 법을 전수할 때 제1기 수련반에는 다만 200여 명뿐이었다. 그러나 오늘 그것은 1억 인이 되었다. 당신들은 모두 다른 사람에게 법을 알려줄 의무가 있는데 장래에 곧 많아질 것이 아닌가? 환경은 자신이 조성하는 것이다. 사람이 많아 함께 연공하면 확실히 아주 좋다. 하나는 서로 연구토론하고 서로 증진하며 이런 수련중의 일들을 같이 담론하면 수련의 신심을 증강시킬 수 있다. 동시에 집단적으로 연공하는 마당의 에너지는 대단히 커서 확실히 사람의 수련에 대해서는 좋은 점이 있는데, 이 점은 틀림없다. 혼자서 수련하는 사람은

속으로는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데, 이렇지 않은가? 이런가, 이렇지 않은가? (전체 대답: 그렇습니다) 무슨 원인인가? 어떤 사람은 체면을 위해서이고 어떤 사람은 그 정을 내려놓지 못해서인데, 그렇지 않은가? 때문에 곧 뻘이 알면서도 범하였다. 수련을 하고 있으므로 늘 범해서는 안 되며 여하튼 넘어야 한다.

제자: 사수(死水)에 “眞(쩐) · 善(싼) · 忍(런)”이 포함됩니까?

사부: 우주는 모두 “眞(쩐) · 善(싼) · 忍(런)” 특성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신은 그것이 무슨 개념인지 상관 말라. 일정한 개념 중에서 그것은 이렇다. 다른 개념 중에서 그것은 또 다른 한 모양이다. 수련은 흥취, 지식을 출발점으로 삼을 수 없으며 이는 안 된다. 마음을 수련에 써야 한다.

제자: 나한 층차를 초월하는 수련을 하려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소원을 꼭 품어야 합니까? 만약 이 소원을 품지 않으면 단지 낮은 층차로 수련될 수밖에 없습니까?

사부: 내가 당신의 사상을 이렇게 인도하지 않았고 이런 것을 말하지도 않았는데, 당신은 어느 종교에서 들은 것인가. 무슨 소원을 품는가?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겠다. 모두

에 心性(썬썬)수련을 부지런히 하여 금세에 수련원만할 것을 희망하는데 기회가 있습니까?

사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당신들 많은 사람이 수술하는 것을 담론한다. 나의 이 신체는 구성요소가 모자라는데, 그래도 수련할 수 있는가?라고 한다. 사실 수술이란 사람의 이 공간의 수술일 뿐, 다른 공간의 신체를 털끝만치도 건드리지 못한다. 떼어버린 것도 다만 표면 이 공간의 것일 뿐이다. 신체 본질의 것은 모두 움직이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그쪽에는 구성요소가 모자라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들의 수련은 확실하고도 확실하게 또 이 신체에 의거해야 한다. 만약 당신이 정말 수련의 표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기적이든 모두 당신에게 일어나게 해줄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이 만약 그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 무엇도 당신들에게 줄 수 없다. 그러므로 수련은 곧 엄숙한 것이다.

제자: 깨달았지만 하지 못했거나, 잘하지 못했으면,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 아납니까?

사부: 깨달았지만 잘하지 못한 것은 뻔히 알면서도 범하는 것이 된다.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다. 사실 나는 한마디 우스갯소리를 했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당신들 많은 사람이 이 이치를 뻔히 알면서도 고비를 넘을 때 마음

아주 바쁘면 곧 쉽게 잊어버리거나 혹은 좀 일찍이 연공하거나 좀 늦게 연공하는데, 어쨌든 비교적 좀 게을러지는바, 이것은 확실하다.

제자: 왜 제가 본 다른 공간의 사람은 모두 서양인의 형상이며 심지어는 날개를 가진 천사(天使)가 있으나 동양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까?

사부: 보았으면 곧 그만이다. 내가 만약 당신에게 투철히 지적하면 나는 당신이 또 다른 집착과 오해가 생길까 두렵다. 우리들의 수련생, 당신은 당신이 오늘 마치 중국 사람이고 혹은 당신이 스웨덴 사람, 혹은 기타 백인종이라고만 보지 말라. 당신은 아마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일 것이다. 우주는 대단히 방대하다. 혹시 당신이 수련된 후에 서양 신의 그 세계와 같은 데로 가게 될지도 모른다. 혹시 이러한바 나는 긍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어떤 집착도 일으키지 말라. 또 그 어떤 환희심과 오해가 있어 이후부터 불가(佛家)의 것을 연마하지 않겠다고도 하지 말라. 당신이 만약 내가 오늘 당신에게 전해준 이 세트의 것을 연마하지 않으면 당신은 그곳으로 갈 수 없다. 당신은 사부님께서 전하는 것은 불가의 것이라고 하며 내일 나는 천주교회에 가서 기도하겠다고 한다면, 당신은 곧 돌아가지 못한다. 나는 내가 불가의

기점에 입각하였고 내가 전하는 것은 우주의 법이라고 말했다. 어느 한 가(家)가 우주법의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겠는가? 곧 이 이치이다. 나의 이 법은 강의하면 할수록 더욱 명백해지지만, 이러면 아마 당신들의 수련에 별로 좋은 점이 없을 것이다. 이 모두는 당신들 자신이 닦고 스스로 깨달아야 할 것들이다.

제자: 저는 육친에게 다시는 모(某) 공(功)을 연마하지 말라고 권했습니다. 밤에 꿈속에서 저는 자신을 잘 파악하지 못하여 그한테서 머리에서부터 관정(灌頂)을 받아 아주 많은 나쁜 것들이 들어왔는데, 깨어나니 머리가 매우 아팠습니다. 그때부터 늘 머리가 아픈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부: 당신은 자신을 잘 파악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그가 당신에게 관정을 해 준다고 할 때 당신은 반대하지 않았는데, 반대하지 않았으면 곧 요구한 것이라, 당신의 일념지차(一念之差)로 당신은 그가 당신에게 관정해 주는 것에 동의하였다. 교훈을 기억하고 다음번에 잘 파악하면 괜찮으며, 이번은 고함이었다. 당신의 머리가 아픈 감각은 가짜이며 깨달음을 제고하라고 당신을 훈계한 것이다. 꿈속의 고함은 수련이 아니며 이 고함은 이런 상태에서 당신이 수련

것이다. 마치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말한 법처럼 이렇게 많은 말과 같다. 운동 중의 수인은 곧 언어이며 연이어 하면 곧 강의한 한 단락의 법이다. 만약 내가 말로 할 수 있는 이야기라면 나는 오늘 당신들에게 수인을 해주지 않는다. 바로 그런 이야기는 말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들은 내가 오늘 말한 것이 높다고 느끼는데, 이렇게 생각함은 확실하지만 그 수인은 이보다 얼마나 더 높은지 모른다. 그진상(眞相)을 한 것인데,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해도 또 별 문제가 없다.

제자: 우리는 법을 널리 선전하기 위해 서양사회에 배치되어 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장래에 우리는 합당한 시간에 마땅히 동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사부: 만약 당신이 이민(移民)하여 서양에 왔다면 무엇 때문인지를 나는 아무것도 당신에게 알려줄 수 없다. 지금 당신들이 어디에 가도 다 된다. 당신은 장래에 원만을 이루게 되면 동양으로 돌아간다고 말한다. 당신이 원만을 이루고도 또 지구에 와서 무엇을 하는가?

제자: 신장(腎臟) 이식을 실패한 후 재차 떼어버린 사람이 기회와 인연이 되어 法輪功(파룬궁)을 배웁니다. 평소

가?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에게 불이법문(不二法門)의 요지를 알려줄 수 있겠는가? 대법 또한 함부로 사람으로 하여금 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마 그가 이것들에 집착하면 장애가 되어 그는 얻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곧 그만이다. 왜냐하면 내려놓지 못하고, 전일하게 수련하지 못해 원만을 이룰 수 없으면 또 대법을 파괴하기 때문인데, 이는 그의 개인적인 감정이 그로 하여금 법을 얻지 못하게 한 것이다. 대법은 엄숙한 것으로서 사람마다 모두 법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법을 널리 전하여 연분이 있는 사람, 아직도 법을 얻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모두 와서 법을 얻게 할 것이다. 그러나 확실하고도 확실하게 일부분 사람은 전혀 얻을 수 없으며 그로 하여금 보게 할 수 없는데, 그는 아마 장애가 될 것이다. 장애가 되지 않으면 그는 아직도 연분이 있는 것이다.

제자: 정식 발행한 사부님의 법상(法像) 몇 장에 수인(手印)이 다른데, 그 중의 내포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사부: 법회에서 사용하는 이 상(像)을 제외하고 그 어떤 수인을 치는 상을 발행한 적이 없다. 수인은 매우 복잡한

한 것이 견고한지 아닌지 보려는, 바로 이러한 일이다. 만약 당신이 꿈속에서 모두 매우 단단하게 잘 파악할 수 있다면 당신이 이 한 지경에서, 이 한 문제에서 아주 착실히 수련되었다는 것을 설명한다. 그러나 이것은 당신의 이 한 차례 상황을 가리키는데, 많은 꿈은 모두 꼭 꿈이 아니며 마(魔)가 정말로 왔다면 곧 이렇지 않다.

제자: 사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이 세계는 더러운 것이고 또 이쪽의 것은 저쪽을 놓고 말하면 그래도 아주 진귀하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석합니까?

사부: 당신이 이 세계의 것을 원래 그대로 그냥 그 세계로 가져간다면 누구도 가지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제일 더러운 것으로, 대변보다도 더 더러운 것으로 여길 것인데, 정말 이렇다. 그러나 이 세계의 물질이 그런 연화과정을 거쳐 경지 중의 물질로 승화되었다면 곧 진귀한 것이다. 그것은 이러한 한 층의 관계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물질은 여기에서 내원(來源)되었으나 여기의 물질은 또 위에서 떨어져 내려온 것으로서 곧 이러한 관계이다. 천기(天機)를 다 누설했다.

제자: 수련하여 원영(元嬰)이 출세할 때에 이르면 천목은

그를 다 볼 수 있는데, 중층(中層)에 진입하는 표준은 무엇입니까?

사부: 과거 세간의 일부 수련방법 중에서는 볼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과거 도가(道家) 수련에서 그 원영(元嬰)이 7, 8세 어린이만 한 크기로 자랐을 때 그의元神(웬션)이 곧 들어가서 그를 주재하려고 하며 신체 안에서 뛰어나 오는데, 이것을 원영출세라고 한다. 그는 참지 못하며 그는 너무나 흥분되었다. 그것은 불체(佛體)라, 그는 곧 나와서 활동하고 놀기도 한다. 당신이 신체 안에 원영이 있음을 보았지만 나오지 않으면 그건 원영출세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여기에서는 나옴을 모두 허락하지 않으며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허락하지 않는다. 나는 방금 말했다. 이 층 공간만 아직 처리하지 않았기에 이곳은 다르며 아주 더럽고 아주 위험하다. 고층공간을 처리하는 과정 중에서 그것은 심지어 아주 많이 뛰어 들어왔으며 심지어는 층차가 아주 높은 좋지 않은 것들도 다 있다. 당신이 보전대 거리에서 걷는 어떤 것은 사람이지만 사실 그것은 사람이 아니다. 당신이 만약 볼 수 있다면 이 세계를 보라. 외계인(外星人)이 또 아주 많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과 같아서 보아내지 못하는데, 이런 것을 모두 다 처리해야 한다.

중층(中層)에 들어가는 표준은 무엇인가? 당신은 당신이

저만이 아니다. 물론 사람이 좋지 못하게 되면 폭력이 충돌한다든가, 천재인화가 많아진다는가 하여, 서로 죽이고 싸워 압력이 굽이칠 것이다. 그 전망이 어떤가? 대단히 무섭다. 수련을 말한다면, 대법 전망이 미국에서 어떠한가 하는 그것은 곧 미국사람의 법 얻는 상황을 보아야 한다.

제자: 어떤 미국인은 대법 중의 일부 내용이 다른 유관공법을 반대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면 흔히 일부 문제를 조성하는데요.

사부: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큰 법을 전함에, 이 책 속에는 곧 여러 사람에 대한 많고도 많은 고함이 있는데,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본다. 대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함부로 얻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지금은 사교라든가, 가짜 기공이라든가 형형색색, 많기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것들은 남의 자제를 망치고, 수련을 할 수 있는 아주 많은 사람을 마치 종교가 하는 것처럼 끌어들이는데, 또 어떤 것은 자살을 하는 등 아수라장이다. 나는 말했다. 나는 단지 사람을 제도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다. 내가 만약 이런 좋지 않은 것들을 지적하지 않고, 당신에게 그것이 사(邪)한 것이라고 알려주지 않으면, 당신이 어떻게 교란을 받지 않고, 전일(專一)하게 수련할 수 있겠는



좋지 못하다고 느낀다면 또 번역할 수 있으며 더욱 좋게 번역할 수 있다.

우리들이 중국에서 일부 수련생을 조직하여 이 책을 번역했는데, 영어로 번역하는데 2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여러분은 서로 쟁론하며 이 원래의 뜻을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번역하여 영어로 보는 사람에게 주려고 생각했다. 그들은 매우 큰 곤란을 극복하였다. 당신들은 마련된 것을 얻고도 어렵다고 느낀다. 만약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스스로 중국에서 번역한 것과 대조할 수 있다. 한 러시아의 유학생이 보스턴에 있는데, 어제 그가 말할 때 내가 거기에서 들었다. 여러분은 그가 한어(漢語)를 배우는 과정 중 학습하는 것이 매우 특이함을 느꼈는데, 이런 현상이 아주 많다. 당신이 심혈을 기울이면 내가 생각하건대 모두 그와 같을 것이다.

대법이 미국사람 중의 전망이 어떠한가에 대해 말한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그 어떤 한 가지 일, 그 어떤 한 생명이 이 우주 중에서 하는 어떤 일이든, 다 그것의 미래를 보아낼 수 있는데, 시작부터 끝까지이다. 공교롭게도 내가 하는 이 일만은 누구도 미래를 보아내지 못한다. 내가 하기 전에는 없는바, 아예 미래가 없다. 장래에 어떠한가에 대해 말한다면 지금 인류사회를 따라 발전해 나간다면 장래의 사람은 모두 마치 마(魔)와 같아 사악하기로 이만

얼마만큼 높이 수련할 수 있는지를 아는가? 어디가 당신의 중층인가? 당신의 수련을 보증하기 위해 지금 당신에게 이렇게 수련하라고 하므로 당신은 알 방법이 없으며 또 당신으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한다. 당신이 일단 알게 되면 당신의 집착심, 환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당신이 무슨 일을 할지 자신도 모른다. 과거에 이렇게 수련하여 일부 사람을 망쳤다. 어느 하루 갑자기 자신이 부처형상임을 보고 스스로 밖으로 뛰쳐나가 그는 곧 기공사가 되었다. 나는 부처다 하며 그는 곧 그 짓을 한다. 누구에게도 불복하고 사부에게마저도 불복한다. 당신은 당신이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당신이 현재의 상태 하에서, 당신이 일단 이 환경을 떠나 무엇을 보았을 때,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가? 때문에 여러분이 더욱 빨리 제고함을 보증하기 위해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보게 하는데, 개개인의 상황이 같지 않다. 우리 또 매우 많은 제자가 원만의 변두리에 처해 있다. 사실 그는 이미 원만을 이루었는데, 다만 그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할 뿐이다. 그러나 그는 매우 많은 일들을 알고 있는 듯하고, 어떤 사람은 나와 말하고 있으며 나를 보고 나와 소통하려고 한다. 이는 여태까지는 없었던 현상이며 모두 불가능한 일들인데, 우리 수련생, 어떤 사람은 매우 빨리 수련

되었음을 설명한다.

제자: 일부 제자가 늘 다른 사람보다 한 층 높은 체하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들과 멀리하려고만 생각하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현상입니까 아직 수련을 잘하지 못한 것입니까?

사부: 이런 것을 다만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은 이런 집착심이 있다. 우리 일부 수련생은 느끼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을 움직이기만 하면 집착심을 내놓아 사람으로 하여금 견딜 수 없게 한다. 특히 신 수련생의 경우 반응하여 나온 사상이 좀 많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련생이 수련한 것이 좋지 못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직 버리지 못한 마음이 표현되어 나왔기 때문이다. 수련이란 바로 이러하다. 다른 사람에게 좋지 못한 마음이 있음을 보고 곧 다른 사람이 좋지 못하다고 말할 수 없고, 또 한 가지 일을 잘한 것을 보고 곧 그가 수련한 것이 높다고 말할 수도 없다. 전면적으로 이 사람을 기증해야 한다.

제자: 사부님께서 “도법(道法)” 경문 중에서 “인위적으로 사악한 마를 자양하였다.”라고 하셨는데 이 ‘사악한

을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당신이 속인사회 중의 이러한 일을 잘 하려면 부처의 사상으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없으므로 당신은 아직도 사람의 사상이다. 이는 단지 층차 중의 부동한 상황의 표현일 뿐이다.

제자: 미국인 친구들이 『轉法輪(전법륜)』 영어 번역본을 읽기 어렵다고 원망하는데, 사부님께서 대법이 미국사람 중의 전망을 지적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부: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영어 번역본이 읽기 어렵다고 말하는데, 아니다. 내가 말하건대 영어번역본은 아주 잘 번역되었다. 더욱이 미국에서 나온 그 책은 매우 통속적이다. 이 대법의 내포가 대단히 커서 사상이 비교적 간단한 미국사람이 보고 어려움을 느끼는데, 머리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데 습관이 된 젊은 사람들은 어떤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여기 앉은 사람들 누가 『轉法輪(전법륜)』을 보고 그를 쉽게 모두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모두 배울수록 더욱 어렵다고 느낀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당승(唐僧)은 서천에 가서 경(經)을 얻기 위해 11년을 걷고, 갖은 고난을 겪었으며, 돌아와서는 또 자신이 번역을 해야 했다. 오늘날 대법이 여기에 놓여 있는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그가 어렵다고 느낀다. 당신들이 만약 번역한 것이

아주 오래도록 전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충돌되지 않습니까?

사부: 나는 시간이 매우 긴박하다고 말하는바, 나는 내가 사람을 제도하는 것만이 아니라고 했다. 당신들이 월만을 이룬 후를 기다려 나는 또 해야 할 다른 일이 있는데, 당신들에게 말해 줄 수 없다. 나는 인간세상에서 오래 법을 전할 수 없다. 내가 시간이 매우 긴박하다고 말한다 해서, 당신은 곧 수련을 서두르거나, 또 내가 한 말을 왜곡하지 말아야 하고, 현재의 그러한 사악한 종교가 말하는 그 무슨 겁난과 함께 뒤섞지 말아야 한다. 수련의 시간은 확실히 매우 긴박하다. 무슨 겁난은 없다. 그러나 수련은 끝나는 날이 있다. 진상이 나타나기만 하면 무엇이든 모두 끝나는데, 그러면 곧 당신이 더 수련함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류는 계속 이어질 것이고, 수련은 영원히 있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이후의 수련형식이다.

제자: 속인사회 중에서 생활하며 참답게 일하고 사업, 가정에 대하여 책임지며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면 집착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부: 나는 당신의 말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또 당신의 말 속에 또한 매우 중한 사람의 것이 있음

마'는 어떤 것입니까?

사부: 그 마(魔), 그것은 어떤 것인가? 곧바로 마이다. 이 우주는 본래부터 마가 있는데, 당신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주로 心性(썸씽)에서부터 혹은 사상에 반응하여 나오는 마성(魔性)의 것으로서, 사람에게에는 아직도 마성이 있음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서 우리 수련생은 서로 간에 어떤 때 다른 사람에게 마가 되어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한 번 어떤 사람의 마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가 마라고 말할 수 없으며 다만 그가 이런 작용을 일으켰다고 말할 뿐이다. 이 사람은 아마 그래도 꽤 좋으며 여전히 수련할 것인데, 다만 그가 이 일을 잘하지 못하여 다른 사람에게 한 번 마가 되었을 뿐이다. 또 어떤 사람은 사상업이 비교적 심한데, “도법(道法)” 경문 중에서 가리키는 그 마는 법을 파괴하고 당신의 수련을 파괴하는데, 이런 유(類)에게서 내가 당신을 보호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겠다. 수련 중에서 나타난 일체 상황은 모두 당신과 관계가 있으므로 당신은 수련해야 한다.

제자: 법을 얻은 일면은 어떻게 정법(正法)합니까?

사부: 당신은 “도법(道法)” 이 경문을 묻고 있는데 나는 여기에서 당신에게 구체적인 해석을 하지 않겠다. 당신이

“도법” 이 경문을 어떻게 이해하든지 당신은 빗나가게 이해하지 않는다. 다만 당신이 이해한 정도가 제한되어 있을 뿐이다. 사실 나는 전혀 당신의 사람 이 쪽에 써준 것이 아니고, 당신의 이미 수련이 잘된 그 한 면에 써준 것이다. 때문에 당신이 어느 정도로 알았다면 곧 그 정도로 알면 된다.

제자: 신장(新疆)의 제자는 사부님을 고대합니다.

사부: 나를 오라고 한다. 나는 여러분의 마음을 안다. 여러분 감사하다. 많은 곳에서 모두 내가 왔으면 하는 생각이 다. 기회와 연분에 달렸다.

제자: 나는 법을 널리 선양하려고 많이 생각하지만 어떤 때 자신이 잘하지 못할까 봐, 세심하지 못해 대법을 파괴할까 봐 걱정되는데, 어떻게 파악해야 합니까?

사부: 당신 자신이 법을 배운 체험을 말하라. 법을 당신 자신의 말로 삼지 말며 법을 곡해하여 말하지 말고 당신 자신의 체험을 말하라. 당신이 법을 파괴할까 두려우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당신이 나는 이 법에서 무엇을 체험하였는데, 어떠하다고 말하라. 당신이 다시 한마디 첨가하여 이 법 속에는 내포가 몹시 큰데, 이는 다만 내가 이 경지 중에서 현존의 체험에 불과하다고 말하라. 이것은 법을 파괴하

음만 본다고 이미 말했다. 내가 사람의 마음마저도 보지 않는다면 당신들을 제도할 수 있겠는가? 사실 어느 한 문에서 수련하든지 모두 사람의 마음을 개변해야 한다. 다만 우리는 직지인심(直指人心)일 뿐이다.

제자: 저는 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법력이 끝없고 일체가 모두 무변지중(無邊之中)에 있으며 끝에 이를 수 없음을 느낍니다. 이것은 어찌된 일인지요? 사부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사부: “일체는 모두 무변지중(無邊之中)에 있다.”, 이 역시 일종 고행이다. 일단 원만에 이미 가까워졌다고 느껴지면 이런 감각이 없을 것이다. 당신의 감각은 매우 좋다. 당신이 어떤 감수가 있든지 그것을 상관하지 말라. 어떤 때는 제고되고 승화됨이 아주 빠르다. 그러나 삼계(三界) 이 부분 신체에 진입할 때 곧 몹시 어려운바, 한 걸음 전진하기가 모두 매우 어렵다. 그야말로 어려운 것은 당신들이 좀처럼 사람의 관념을 버리기 싫어하기 때문인데, 이는 내가 본 한 가지 상황이다.

제자: 사부님께서 늘 시간이 매우 긴박하다고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또 대법이 속인 사이에서 아주 널리 전해지며

말하며, 표면상에서 나의 연공요구에 따라 했으나 그는 실제로 진정하게 연공인의 표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여전히 생각한다. 내가 오로지 이렇게 하기만 하면 사부님께서는 꼭 나에게 병을 없애줄 것이다. 그는 여전히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사부님께서 그의 병을 없애줄 것이라는 생각을 근본적으로 버렸는가, 버리지 않았는가? 여전히 마음속에 파묻고 있고, 감추고 있지 않은가? 그 표면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닌가? 나를 속이려고? 실제적으로는 바로 자신을 속였다. 그런 그가 그의 병을 낫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흔히 중병을 얻은 사람에게 모두 그에게 기회를 주는바, 늦추고 또 늦춘다. 병원에서 그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날짜는 벌써 지났다. 매우 긴 시간이 지났는데, 반년, 일 년, 몇 년이다. 아직도 그에게 기회를 주며 그가 그 마음을 버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는 좀처럼 버리지 못한다. 그는 입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 늘 불안해하며 내가 法輪功(파룬궁)을 연마하니 나의 병은 아마 없어질 것이고, 내가 法輪功(파룬궁)을 연마하니 아마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자신을 전혀 병을 생각하지 않는 진정한 수련제자로 대하지 못한다. 당신들에 대한 나의 요구는 아무것도 없다. 전부 다 풀어놓았으며 단지 사람의 마

는 것이 아니다. 혹은 당신이 사부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당신이 그로 하여금 스스로 인식하게끔 하라. 이는 모두 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만약 내가 한 말을 당신의 말로 삼아 다른 사람과 말한다면 무의식중에 좋지 못한 작용을 일으킨다. 그러면 어떤 때에 다른 사람도 자신의 관념을 법속에 넣고 그의 이 구절의 말은 이런 일이며, 저런 일이라고 한다. 그가 이렇게 해석하기만 하면 곧 잘못된다. 그가 바로 법을 함부로 해석하지 않았는가? 사실 법은 매우 깊은 내포가 있으므로 그는 도무지 해석할 수 없다. 당신은 단지 나는 법에 또 이런 내포가 들어있다고 인식하는데, 아직도 더욱 높은 내포가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는 모두 상관없다.

제자: 무위(無爲)여야 하고 속인의 쓸데없는 일을 상관하지 말아야 하지만, 또 곳곳에서 남을 위해 생각해야 하는데 관계를 어떻게 바로잡아야 합니까?

사부: 내가 법 중에서 말한 한 가지 법리는, 사람마다 자신의 이 한 마음을 수련하여 자신을 좋은 사람, 더욱 좋은 사람으로 변화하도록 하며 나아가 높은 경지의 표준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자기 내심에서 찾아야 한다. 당신이 보게 되는 사회 중의 무슨 이런 일, 저런 일을

무엇이나 상관한다면, 아마 잘 상관하지 못하고, 잘못 상관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되도록 적게 하고 상관하지 말아야 한다. 예전대 과거에 그 화상(和尚)은 왜 출가했는가? 심지어 그는 솜으로 귀를 틀어막고 온종일 듣지 않고, 아무 것도 다 듣지 않겠다면서, 자신이 말을 할까 두려워 입을 틀어막는다. 그는 사람이 좋지 못한 것을 들으면 마치 곳곳에서 모두 입을 빗어내는 것과 같음을 발견하였다.

어떤 것을 나쁜 사람이라 하는지 당신들은 아는가? 나쁜 사람, 그는 왜 나쁠 수 있는가? 바로 그가 두뇌 속에 나쁜 것을 너무 많이 부어넣고, 나쁜 것을 너무 많이 배워, 그의 두뇌는 온통 모두 나쁜 것이라, 표현해 내든, 표현해 내지 않든 그는 나쁜 사람이다. 그럼 이러한 나쁜 것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곧 들어서 넣은 것이 아닌가? 나는 무엇이나 다 가지려 하지 않고, 그런 좋지 못한 것을 나는 듣지 않으며 보고도 못 본 체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다. 어떤 것이 좋은 사람인가? 온 두뇌에 담은 것이 좋은 것이면 당신은 곧 좋은 사람이다. 당신의 두뇌에 있는 것이 모두 좋은 것이면 당신이 하는 일은 곧 표준에 부합될 것이다. 행위는 모두 대뇌의 지휘를 받으므로 당연히 좋은 일을 한다. 수련하는 사람으로서 속인중의 일을 늘 상관하기 좋아한다면, 인연관계를 볼 수 없기에 잘못 상관할 수 있다. 당신의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모두 좋아졌고, 그 숫자가 상당한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은 내가 말할 필요가 없는바, 우리 수련생들이 모두 알고 있다.

또 일부 암에 걸렸거나 기타 불치병에 걸렸던 위중한 환자들이 와서 우리 法輪功(파룬궁)을 연마했는데, 그는 여전히 죽었다. 무엇 때문인가? 그는 입으로는, 나는 法輪功(파룬궁)을 연마한다고 말하지만 그의 사상 중에서 그의 병을 전혀 내려놓지 않았다. 그럼 어떤 사람은 생각할 것이다. 그의 연마는 아주 적극적이었으며, 그도 우리에게 약을 먹지 말라고 알려주었는가 하면, 그도 우리로 하여금 그 병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게 하였고, 또 여러분이 법을 배우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러나 그 자신은 꼭 포기한 것도 아니다. 당신은 그가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모르는데, 곧 이렇게 복잡하다. 그는 남들에게 마음속에서 내려놓으라고 하고, 그는 사부님은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사부님께 듣게 한다. 간단하게 말해서 사부를 속이고 있는데, 그의 진정한 목적은,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 사부님께서는 꼭 나를 책임져 달라는 것으로서, 나는 책을 보고 있고, 나는 연공하고 있으며, 나는 또 남들로 하여금 수련하게 했으니 사부님은 꼭 나의 병을 없애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신이 보라. 그는 표면적으로는 약을 먹지 않고, 입으로도 이렇게

않고, 또 정진하지도 않으며, 또 책의 요구에 따라 하지 않았는데, 당신이 나의 제자일 수 있는가? 그는 여전히 한 속인이 아닌가? 그런 병에 걸린 속인이, 마치 물에 빠져 죽게 된 사람이 목숨을 구하려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것같이, 내가 사람의 병업(病業)을 없애버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이 공은 소업(消業)할 때에 약을 먹지 않는다하니, 그 역시, 연공하면 약을 먹지 않아도 곧 좋아지고 나는 죽지 않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며, 공을 연마한다. 그는 속인일 뿐만 아니라 게다가 또 이처럼 강한 집착심이 있는데, 그가 죽지 않을 수 있는가?

대법은 엄숙한 것이며 수련은 엄숙한 것이다. 이렇게 함부로 응당 생명이 결속되어야 할 한 사람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고 함부로 속인을 부처로 원만 성취되게 한다면 어찌 될 수 있는가?! 당신은 당신 그 마음을 수련하는 것으로서, 가장 근본상에서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여전히 인정할 수 없다. 당신은 당신이 표면상에서 잘했다고 말하는데, 당신 내심에 아직도 당신 자신이 발견하지 못한 그렇게 작고도 작은 집착이 있다면 관(關)을 다 넘은 것으로 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장 엄숙한 것이기에 본질적으로 진정하게 변화를 가져와야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은,法輪功(파룬궁)을 연마하는 아주 많은 사람이, 많은 암과 기타 불치

사업을 당신이 상관하지 않아서는 물론 안 되지만, 속인사회 중에서 한 사람이 누구를 발로 한번 차거나, 누구에게 한마디 욕을 하거나, 누구와 누가 무슨 모순을 일으켜 다투는데, 당신이 가서 공평치 않다며 피해자를 돕는, 이러한 것에 당신은 마땅히 상관을 하지 말아야 한다. 무엇 때문인가? 경찰이 있고 지도자가 있는데, 당신이 가서 상관한다면 당신이 참여하는 것과 같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꼭 맞게 상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그의 전 한 세에 그가 한발로 차는 걸 밟았다면 사람이 이 세상 여기에서 이 한 발로 찬 것을 갚는데, 당신이 가서 상관하면 그는 갚지 못한다. 사람의 이치로 말하면 당신이 한 가지 좋은 일을 했지만, 이 일 그것을 배치하여 업을 갚게 하는 신이 보면, 당신은 한 가지 나쁜 일을 한 것이다. 수련하는 사람은 속인의 표준으로 기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뜻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유위(有爲)적인 일을 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곳곳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생각해야 하는가? 내가 최대한도로 속인사회 중에 부합되게 수련할 것을 말했기 때문에 당신은 사람과 접촉해야 하는 것으로, 그렇다면 곧 이익적인 것이 존재하게 된다. 그런데 당신이 아직도 그렇게 이기적이고 무슨 일이 있으면 당신은 모두 우선 자신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것

은 곧 안 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당신은 필경 아직도 사회의 많은 사람과 접촉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사업 중에서 매우 냉담하게 거기에 앉아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내가 생각하건대, 사장이 당신을 쫓아내게 될 것인즉, 당신은 여전히 인류사회의 생존상태에 부합되어야 한다. 당신은 사람과 접촉해야 하고 사람을 착하게 대하고 일에 함에 먼저 다른 사람을 고려해야 한다. 오늘날 사회의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하는데, 다른 사람 호주머니 속의 돈을 모두 털어내려고 생각하며 단번에 벼락부자가 되려고 한다. 이 점에서 유럽 백인은 장사를 하는 그들의 심태(心態)가 아주 좋다고 나는 느낀다. 그는 그것을 사업, 직업으로 삼아 성의껏 한다. 하루에 고객이 한 사람 있을지라도 그는 적다고 꺼리지 않는다. 그는 이것이 그의 사업이고 이것이 사람 생활의 일부분이며, 한 가지 일을 하고 있고, 생활을 유지해 나가며 저축이 좀 있으면 된다고 여긴다. 이것이 사람의 상태이다. 사람들은 지금 벼락부자가 되려는 생각이 강성하기로 이만저만이 아니다. 사람들은 곧 이런 지도사상으로 말미암아 모두 서로 해치며, 마치 다른 사람의 돈을 깡그리 털어내어 모두 자기의 호주머니에 넣을 듯이 한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겠는가? 그는 다른 사람도 고통스럽다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는가? 일을 함에 전혀 남을 생각하지 않

제자: 듣건대 법을 배운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국내의 한 수련생이 죽었다고 합니다. 죽기 전에 그는 약을 먹지 않는 것을 견지하였습니다. 이처럼 생사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여전히 죽을 수 있습니까?

사부: 한 환자가 마음속으로 나에게 그 병을 없애주기를 바라고 약을 먹지 않는다는가, 혹은 단호하게 자신을 연공인으로 간주하는가는 표면상에서 보아낼 수 있다. 한 속인이 죽을병을 얻고서 그가 죽더라도 약을 먹지 않고 견지한다면 그가 죽겠는가, 죽지 않겠는가? 그는 죽지 않았는가? 마땅히 그가 죽어야 하기에 곧 죽은 것이잖은가. 왜냐하면 그는 속인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속인, 그에게 마음대로 생명을 연장해 줄 수 있겠는가? 그는 그가 연공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라. 그렇지 않은가. 당신이 오늘法輪功(파룬궁)을 연마했고 또 책도 보았다고 해서 곧 대법제자인가? 당신은 정진하지 못했고 당신은 진정하게 내가 당신에게 알려준 표준에 따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의 제자일 수 있는가? 당신이 나의 제자인지 아닌지는 내가 당신을 제자라고 승인하는가, 승인하지 않는가에 있다. 다시 말해서 당신 자신이, 한 제자의 표준에 도달했는가, 도달하지 못했는가? 당신이 매일 연공하는 것이 체조하는 것과 같으며, 당신이 비록 책을 보았을지라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제자: 원영(元嬰)은 자라서 본인과 같이 큰 다음 더 자라지 않는데, 그 어린이가 수련하면 그가 본인이 자라나기를 기다려야 합니까?

사부: 사람을 어떻게 원영과 비교하는가? 원영 자체는 수련되어 나온 것이다. 우리 많은 어린이가 수련하고 있지 않은가?

제자: 다른 사람의 사상이 늘 저의 머릿속으로 들어올 수 있어 그가 졸리면 저도 자고 싶고, 그가 화를 내면 저도 곧 불쾌해집니다.

사부: 이것은 연공 중에서 나타난 한 가지 상태인데, 당신 신체의 땀구멍이 모두 열려 밖의 정보가 당신에게 감응될 수 있다. 그것은 무슨 공능이 아니고 그것은 단지 수련과정 중의 한 가지 상태일 뿐이다. 다른 사람의 신체 어디가 아프면 당신도 따라서 아프고, 다른 사람이 어디가 불편하면 당신도 불편하며, 다른 사람이 기쁘면 마치 당신도 따라서 기뻐지는 듯하다. 그것은 실제로 한 가지 당신의 신체가 통했을 때 생기는 일종 상태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빨리 지나가게 되며 당신이 수련한 것이 빠를수록 이 상태가 지나가는 것도 더욱 빠르다.

는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인류사회의 변이(變異)된 사상이다. 일을 함에 다른 사람이 감당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바로 사람이다.

제자: 사부님께서 “중간을 취하다(取中)” 이 경문의 함의를 더 말씀해 주십시오.

사부: 수련생은 모두 마땅히 명백해야 한다. 바로 당신들이 법을 인식함에 사람의 감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법을 인식하지 말아야 한다. 간단히 말하면 곧 이 이치이다. 예컨대 오늘 한 사람이 나를 취재한다. 그는 곧 예를 들어 말하기를 우주의 안과 밖은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한다. 나는, 당신이 말한 개념은 사람의 생각이라고 한다. 이 우주 중에는 당신이 말한 그런 안과 밖이 없으며, 이 개념도 없다. 당신이 말한 것은 사람의 사유이며, 사람의 생각이다. 내가 말한 그 뜻은 우리들도 한번 사람의 생각을 개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즉 당신의 평상시 생활 중에서, 법에 대한 인식에서 당신은 정말로 더는 사람의 사상으로 대해서는 안 되며, 사람 자신의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것을 고수하면서 법을 인식해서는 안 된다. “중간을 취하다(取中)”의 표면 뜻은 극단으로 가지 말라는 것이다.

제자: 사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큰 부처님의 위 덕은 모두 그들 자신이 수련해 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처세계에서는 수련하기가 매우 힘든데, 그럼 그들은 모두 인간으로 되돌아 와서 수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사부: 우주중의 생명은 두 가지 내원이 있다. 하나는 부모가 낳은 것이고, 하나는 곧 우주의 물질운동의 작용 하에서 생긴 것이다. 그 경지 중에서 생긴 생명은 곧 그렇게 높은 경지이며, 그는 그 어떤 낮은 층차의 것으로부터 오염되지 않았고, 또 낮은 층차 표준의 요구가 없어, 그는 생기자마자 곧 그 경지의 표준에 부합되었는바, 곧 그 경지에서 생활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외의 것은 수련한 것이다. 내 이것은, 당신들이 수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수련에 중점을 두고 한 말이다. 수련하여 올라간 그 한 부분은 우주 중에서 사실 숫자가 가려할 만큼 작다. 다수의 생명이 그 경지 중에서 생긴 것이다.

제자: 많은 수련생이 법을 널리 선전하는 열렬한 마음이 저를 아주 감동케 하지만 저 본인은 늘 냉담합니다. 어떻게 해야만 비로소 이러한 상태를 개변할 수 있습니까?

사부: 이젠 나에게 무슨 요구가 없다. 우리 수련생 모두가

반드시 법을 널리 선전하고 이 법을 남에게 전해주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이 열렬한 마음이 없어, 그가 법을 얻고서도 법을 전하는 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이다. 당신으로 하여금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기에 또 당신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말한다. 제자로서 당신은 자비가 있기 때문에, 당신은 다른 사람이 고생하는 것을 보고 남에게 알려주려 하는데, 당신이 남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주고, 그 무슨 도움을 주든지 그에게 법을 전해주는 것만 못하다. 이것은 가장 좋은 일을 하는 것이잖은가.

제자: 음악테이프를 틀지 않은 상황에서 연공하면 동작속도의 빠르고 느림이 효과에 영향 줄 수 있습니까?

사부: 당신이 아무리 빠르더라도 너무 빠를 수 없고, 아무리 느리더라도 너무 느릴 수 없다. 이 빠름과 느림은 고정된 것이 없으며 반드시 나와 똑같은 모양으로 꼭 같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렇지 않다. 우리는 기제(機制)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할 때 녹음테이프와 대체적으로 같으면 된다. 집단적으로 연공할 때 동작은 같아야 하고 정연해야 한다.